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조선 고유의 아름다움 물씬한 글

이삼만 서 사마온공해선게 서첩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지만, 조선 후기의 삼대명필로 추사 김정희, 눌인 조광진(曺匡振), 창암 이삼만(李三晩)을 꼽을 수 있다. 추사는 모르는 이가 없는 당대의 명필이지만, 창암 이삼만 선생은 근래에 선양(宣揚)돼 이제는 호남 제일의 명필로 이름이 높다.

창암은 본래 전북 정읍의 부유한 집안의 자제로 태어났으나 가난을 괘의치 않고 평생을 글 쓰는 데 매달려 살았다.

창암이 세상에 알려진 것에는 몇 가지 설이 있다. 부산의 약재상이 창암에게 약재품목을 적어 달라해 중국 상인에게 보여 주었더니, 그 중국인이 깜짝 놀라며, 중국의 서성(書聖)이 동방에 태어났다고 절을 한 데서 유명해졌다는 설이 있다. 또 그 상인이 평양에 갔다가 조광진에게 창암의 글을 보이니, 과연 명필이라고 탄복했다는 설이 있다.

창암 이삼만 조선 후기의 명필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서체 특징

창암은 어린 시절부터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의 글씨를 연습했다. 창암은 평생 세 개의 벼루를 먹을 갈아 구멍을 내겠다는 결심으로 매일 천자(千字)가 넘는 글을 썼고, 병중(病中)이라도 반드시 일어나 앉아 글을 썼다.

20년 전 우연히 전주에 들러 고서방에서 창암의 첩장본(帖裝本) 서첩을 만져 본 적이 있었다. 그 때에는 불과 몇 만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수장가들의 손에 들어가 고서적상에서는 보기가 힘들다. 가끔 경매에 나오는 물건조차 진품은 부르는 게 값이라 가난한 학승에게는 견물생심일 뿐이다.

물론 유명해진만큼, 섭취라고 부르는 위조글씨도 종종 눈에 띈다. 모조는 아무리 진품과 똑같다고 해도 진품의 고결함만은 따라가지를 못한다. 창암의 글씨는 중국의 대가들을 섭렵한 글씨들과는 다르게 질박한 조선 고유의 토착미가 물씬 풍겨 나오는데 있다.

그의 글씨체는 유수체(流水體)로 불린다. 마치 물 흐르는 듯해 자연스럽고 편안한 초서(草書)를 구사한다고 해서 붙여진 말이다. 특히 그가 뛰어난 점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서도(書道)는 먼저 인품을 갖춘 후에야, 그 묘경(妙境)에 들 수가 있다"고 해서 수행과 서예를 일치시켰다는 점이다.

사마온공해선게는 북송의 학자 사마광(司馬光)이 수나라의 사상가인 왕통(王通)의 저술인 문중자(文中子)에 빗대어 불교를 유자(儒者)의 입장에서 평한 글이다. 사마광은 천재지변은 인간사와 관계가 있다는 천인상관설(天人相關設)로 유명한 편년체의 중국사인 〈자치통감(資治通鑑)〉의 편저자이다.

학인스님들의 필독서인 〈치문경훈(緇門警訓)〉에 나오는 이 글은 철저하게 유학자의 입장에서 불교를 비교하면서 불교의 중국화(中國化)에 치중한 느낌이 많이 드는 글이다. 두 구절을 음미하면서 창밖의 꽃샘추위를 시샘해 본다.

불같이 내는 화는 치열하기 이를 데 없고, 이익을 탐하는 마음은 작살 끝처럼 날카롭네[忿怒如烈火, 利欲如鋩鋒].

아침 내내 슬퍼함이 끝이 없으니, 이를 일컬어 아비지옥이라 할 만하네[終朝長戚戚, 是名阿鼻獄].

안자(晏子)는 거리의 누추한 집을 편안히 여기었고, 맹자는 호연지기를 키웠다네[顔回安陋巷, 孟軻養浩然].

부귀영화는 구름처럼 덧없는 것임을 알면, 곧 이를 극락세계라 이르네[富貴如浩雲, 是名極樂國].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제주도서 그림으로 만난 '中道'

이왈종 화백 4월 1일까지
제주 생활 20년 담은 개인전

"제주 생활의 중도(中道)라는 단일명제로 작업해 온지도 어느덧 20년이 흘렀습니다. 새들과 풀벌레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이곳이 천국인지라 늘 몽환적인 꿈속에서 사는 듯 했습니다."

제주도의 이국적 정취와 아름다운 절경을 다양한 소재로 표현하는 이왈종 화백(67 · 사진)의 대규모 개인전이 갤러리현대 강남에서 4월 1일까지 열린다.

'서귀포 화가'라는 별칭에 맞게 이왈종 화백은 화사하고 밝은 색감으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생활을 그리는 동양화가다.

이번 전시는 회화 부조 목조 도자기 향로 등 이왈종 화백이 그간 작업했던 모든 매체의 작품을 총망라해 선보이는 화백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결정판이다.

추계예술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던 1984년 그는 혈관확장증 때문에 눈이 잘 보이지 않아 한동안 공백기를 맞으며 자신의 삶과 작업을 되돌아보게 됐다.

이활종 화백은 이 때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의 구절에 영향을 받았다. 눈에 보이는 물질인 색(色)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空)의 세계와 같다는 가르침을 체득했다.

이후 그는 1990년 연구년을 맞아 작업을 위한 재충전으로 제주도를 찾은 계기로 다음해에 교수직을 사퇴하고 제주도에 정착했다. 평생 그리고 싶은 그림만 죽겠다는 서원을 세운 까닭이었다. 서귀포에 정착한 이 화백은 예술가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좀 더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변신해야 하는 창조적인 존재의 운명이란 것을 깨닫고 자신의 세계관을 확립시킨다. 바로 '중도의 세계'를 화두로 삼은 것.

"중도란 평등을 추구하는 내 자신의 평상심에서 시작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작용하는 인간의 쾌락과 고통, 사랑과 증오, 탐욕과 이기주의, 좋고 나쁜 분별심 등 마음의 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일고 있는 양변성을 융합시켜 화합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죠. 주체나 객체가 없고 크고 작은 분별도 없는 절대 자유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중도입니다."

그의 작품에는 들풀과 꽃나무가 사람, 집보다도 크게 화폭을 가득 메운다. 인간과 만물은 모두 똑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에 사물이 더 작을 필요도 없고 동등하다는 그의 철학을 드러낸다.

'중도'의 세계 안에 어우러진 동물과 인간군상의 모습은 지극히 평화롭다. 남편과 밥상에 마주앉아 잔소리를 늘어놓는 아내, 개에게 밥을 주는 사람, 열중하여 골프를 치는 무리, 나뭇가지마다 앉아 지저귀는 새들의 모습은 소소한 일상 그 자체다.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인 여느 동양화의 이상향과는 달리 화백이 그리는 이상향은 '생활 밀착형'이라 독특하다.

제주생활의 중도, 2011, 장지 위에 혼합

올해로 22년째에 접어드는 이왈종 화백의 제주도 생활은 은둔적이기보다는 분주하다. 10년 전부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미술교실을 열어 재능을 나누고 있고 서귀포 이중섭 미술관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하나의 철학을 바탕으로 예술에 모든 열정을 쏟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풍성해지는 이왈종 화백의 작품세계로 삶의 여유와 제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이왈종 화백은 "존재하는 것은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이며 또한 그림자와 같다는 법문이 실감난다. 몸과 마음속에서 악취 나는 것을 씻어내는 마음공부를 하면서 모든 존재는 연기(緣起)에서 이뤄지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평등하다는 것을 하얀 종이 위에 담았다"고 말했다. (02)519-0800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내 그림 보는 이 마음 치유되길

28일부터 경인미술관서 법관 스님 선서화전

선(禪)의 세계를 붉은색과 푸른색의 강렬한 대비로 표현해 화단의 주목을 받았던 법관 스님(강릉 능가사 주지)이 3월 28일~4월 3일 경인미술관에서 '선서화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법관 스님은 선서(禪書), 선화(禪畵), 달마도, 다완(찻사발) 등 60여 점의 수묵채색화를 전시한다. 또 스님은 2009년 5월 23일 아침,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소식을 듣고 이를 기리며 그린 난초 그림도 전시한다.

야생난초를 비롯해 망중한(忙中閑)을 표현한 수묵화까지 스님의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케 한다.

법관 스님은 강원도 토굴에서 묵묵히 수행으로 그림을 그린다. 법(法)을 관(觀)한다는 스님의 이름처럼 아름다운 진리의 모습을 작품으로 드러내고자했다.

'망중한' (법관 스님 作)

법관 스님은 지금까지 12차례의 개인전을 비롯해 다수의 그룹전과 아트페어 등에 참가해 온 중진급 화가다. 그만의 독특한 선(禪)의 세계에 매료돼 독일에서도 초대전을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법관 스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그림을 그린다. 이번 전시도 그런 마음에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02)733-4448 **이나은 기자**

법정 스님 애독서 '월든' 담은 피아노 음악

콘텐츠코리아, 〈월든〉 발매

명상음반 '월든' 표지

법정 스님 입적 2주기를 기념하는 피아노 명상음반이 나왔다.

콘텐츠코리아(대표 신효철)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삶의 원천이 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명저인 〈월든(Walden)〉을 담은 피아노 연주음악 '켄 펜더슨의 월든'을 국내에 발매했다.

서거 150주기를 맞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문학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그의 저서 〈월든〉에서 자연 속에서 소박하고 간소한 삶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예찬했다.

법정 스님은 생전 "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로 마하트마 간디와 소로우"라고 할 정도로 소로우의 책을 즐겨 애독했다.

이번 앨범에서 자연주의 릴랙싱 피아니스트 켄 페더슨은 〈월든〉에서 받은 영감을 피아노 연주로 풀어낸다.

앨범에는 법정 스님이 생전 즐겨 들었다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중 '프렐류드'를 전용한 곡 'Uncommon Hour(특별한 때)'를 비롯한 14개의 곡이 수록됐다.

이나은 기자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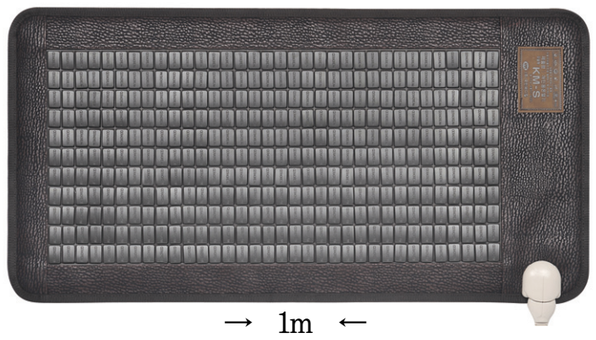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紋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호입니다

인간의 기본 체온은 36.5℃인데 1℃ 떨어지면 저체온(冷氣)이 되어 면역력이 30%↓된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 두한족열(頭寒足熱) :
머리는 차갑게(귀사문석 베게
발은 뜻하게(귀사문석 온열매트)

※ 낮에는 의자나 쇼파에,
밤에는 침대나 요 위에 놓고
하루 24시간 찜질을!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 제 조 원 : (주)국민메티컬 / 경기 양주시 율정동 115번지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광명시 광명7동 305-50
■ 문의전화 : 02)2681-8122 선재생활건강(주)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귀사문석(貴蛇紋石) 이란???

귀사문석은 흑녹옥이라고도 하고, 비취라고도 하는 아주 희귀한 보석이다.
귀사문석은 의학적인 면에서 볼때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다.
1. 원적외선 방사율이 아주 높다 : 귀사문석을 약 40℃의 열을 가하였을 때 원적외선이93%이상 방사 된것이 증명되었다.(한국 건자재 시험연구원, 원적외선 응용평가센터에서 테스트한 결과)
2. 귀사문석은 氣를 잘 돌게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존의 옥보다 3배이상의 많은 氣가 방출되는 천연의 강력한 방사체이다.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귀사문석은 그 대체효과가 매우 높다.
3. 귀사문석은 항균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항균효과는 86%에 달한다. 또한 귀사문석은 냄새 제거능력이 있는 신비한 광석이다.

온열매트의 의학적 효과

건강한 사람의 평균 체온은 섭씨 36.5℃이다. 그런데 1℃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즉 냉증 또는 저체온이 되면, 자율신경중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줄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체온이 35℃로 내려가면 암세포가 증가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에선 매일 3천개-1만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면역력 덕분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 냉증(冷症) 즉 저체온이 되면, 그 증상으로 손과 발이 저리고 무릎이 시리다. 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로 고생도 한다. 또한 당분, 지방 등 영양소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지구를 세바퀴나 돌 수 있는 9만km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적혈구가 엉기는 현상은 저체온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세포 안에 충분히 열이 전달되도록 하면 적혈구의 엉김현상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실제로 원적외선을 이용해 신체 내부까지 골고루 열을 가하면 즉시 엉켜 있던 적혈구들이 원상회복 된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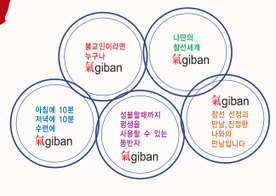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귀사문석 온열매트와
귀사문석 베게를 함께 드립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